

“내전·질병·지진으로 신음하는 국민에게 희망 선물할 것”

국가 위기 속 U대회 참가한 선수들

우크라이나, 내전 중에도 138명 참가... 연일 승전보 ‘에블라’ 시에라리온·라이베리아 육상·유도 등 출전 대지진 네팔, 광주 시민·단체서 유니폼·체류비 지원

내전과 질병, 대지진 등의 피해로 인한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광주U대회에 참가한 각국 선수단의 사연이 관심을 끈다. 어려운 역경을 딛고 대회에 참가한 선수단은 악조건 속에서도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며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기겠다’는 일념으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서아프리카의 빈국 시에라리온과 라이베리아에서 온 선수 7명은 육상과 유도, 탁구, 테니스 등에 출전해 기량을 뽐내고 있다. 에블라와 내전 등으로 혼돈에 빠진 조국을 뒤로하고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은 아직 조국에 안길 메달은 거두지 못했다. 하지만, 기쁨과 승전보를 올려 ‘한 경기 희망’을 국민들에게 건네기 위해 연일 굵은 땀방울을 쏟고 있다. 시에라리온과 라이베리아는 지난 2013

년 말 창궐한 에블라로 최근 2년 새 1만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국가다. 광주U대회에 열리는 지금도 서아프리카에선 에블라로 인한 사망자가 속속 발생하면서 에블라가 또다시 창궐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국민을 억누르고 있다. 독감 유행으로 한 달 새 5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홍콩에서도 79명의 선수가 건너왔다. 지난 4월 발생한 대지진으로 국민 8000여명이 사망한 네팔에서 온 선수들도 양궁과 태권도, 수영 등의 종목에서 다른 나라 선수와 어깨를 나란히 겨루고 있다. 선수 19명 등 50여명의 선수단은 ‘폐허로 변한 조국에 희망을 선사한다’는 일념 뿐이다. 정부로부터 유니폼, 항공료 등 기본적인

지원조차 받지 못한 선수단은 광주시민과 기업, 단체, 경찰의 후원을 받아 양궁, 육상, 배드민턴 등 7개 종목에서 메달 경쟁을 벌이고 있다. 안타깝게도 그러나 네팔,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홍콩 등은 현재까지 조국에 건넨 메달은 거두지 못했다. 네팔 양궁팀을 이끌고 있는 이종은 감독은 “대지진 참사가 채 수습되지 않은 네팔로서는 애초 대회에 참가한 게 기적”이라며 “완대해 준 광주시민들과 조국 네팔을 위해 선수들과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장현 광주시장은 8일 오후 선수촌에서 네팔 선수단과 만나 “고난을 딛고 일어난 선수들이 바로 희망이다. 용기를 갖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격려한 뒤 “네팔이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150만 광주시민 모두가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네팔 선수단은 이에 대해 “광주가 아니었다면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었을 것이다”며 “훈련이 부족하지만 경기마다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의 모습 자체가 국민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다”고 답했다. 네팔 대지진 참사 현장에서 구호 의료할

등을 했던 사단법인 희망나무와 전남대병원·조선대병원·광주진료소 운영위원회·대한산악연맹 등도 힘을 합쳐 네팔 선수단의 유니폼과 체류비를 마련해 전달했다. 또한, 서방과 러시아의 힘겨루기 속에 정부군과 친러시아 성향 반군 간 교전으로 수천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무려 138명의 선수가 참가해 스포츠 강국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선수단은 기계체조 세계랭킹 1위 올레그 베르니야에프를 앞세워 기계 체조와 수영, 조정 등에서 금메달 4개를 획득하는 등 연일 금빛 메달을 조국에 안기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이 밖에도 유도와 수영, 조정 등 다양한 종목에서 은메달과 동메달 14개를 보태 종합 8위에 올라있다. 우크라이나 축구 선수 예전 주복(22)은 “휴전 선언은 했지만 사실상 내전이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를 격정하는 시선이 이곳 선수촌에서도 느껴진다”면서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둬 조국에 희망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단=김영호·백희준기자 khh@kwangju.co.kr



8일 광주시 서구 화정동 유니버시아드 선수촌 꽃가게에서 레바논 선수들과 동료 자원봉사자 김다희(왼쪽 두번째)씨와 정한나(왼쪽 세번째)씨가 꽃을 들고 웃고 있다. <레바논 선수단 제공>

처음 본 선수에게 고백하려고... 경기 뛰는 동료 응원하려고...

선수촌 꽃집 ‘花기애애’

“사람에 국경이 있나요? 고백하고 싶은 선수들 우리 꽃집으로 오세요” 작은 지구촌인 U대회 선수촌에서는 사랑과 감사, 격려·축하의 마음을 전달하는 정(情)이 넘쳐나고 있다. 서로의 마음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는 주인공은 선수촌 내에서 자리잡은 작은 꽃집이다. 선수촌 내 만남의 광장에 자리한 이 꽃집에는 같은 대표팀 동료에게 ‘프로 포즈’를 하려는 ‘로맨틱한’ 선수 뿐만 아니라 메달을 딴 동료에게 축하를 하려는 선수,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 선수들을 격려하려는 임원들로 매일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8일 오전 11시 한 프랑스 선수는 가개가 열리지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천년의 사랑’이라는 꽃말을 지닌 노란 카라 한 송이를 구입했다. 그는 “광주 U대회를 통해 처음 만난 같은 대표팀 여성 선수에게 반했다”며 “오늘 밤에는 꼭 고백할 것”이라며 기대감에 잔뜩 부풀어 있었다. 레바논 테니스 선수 마이클 조셉(22)은 크리스텔 사네(여·21·육상)에게 분홍색 장미 한 송이를 선물했다. 9일 오전에 100m 허들 예선 경기를 치를 크리스텔을 응원하기 위해서였다. 꽃을 받은 크리스텔은 “지난 밤 경기 걱정엔 잠을 설쳤는데 꽃을 받으니까 긴장이 풀리는 것 같다”며 환하게 웃었다. 이밖에도 한 러시아 수영선수는 동료의 24번째 생일 파티 선물을 위해 꽃을 구입했고, 대회 기간 중 결혼 기념일을 맞은 주인공은 선수촌 내에서 아내에게 한국에서의 로맨틱한 사랑을 또 한번 고백하기도 했다. 또한, 캐나다 농구 선수들은 다른 종목 선수들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꽃을 구입하기도 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시상식에서 꽃 대신 누리미 인형을 주는 탓에 꽃 수요가 많지는 않지만, 외국 선수들의 꽃집 사랑은 유별난 것으로 보인다. 꽃집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김다희(여·24)씨는 “가장 많이 꽃을 사가는 나라는 러시아 선수·임원진”이라며 “가장 인기 있는 꽃은 장미고, 이어 러시아산서, 카라, 맨드라미 등도 인기가 높았다. 또 다른 자원봉사자 정한나(여·20)씨는 “대학생 선수들의 경우 주로 2000~3000원 상당의 장미 한 송이를 주로 구매하는 반면, 코치와 감독 등 임원진은 배우자와 선수에게 선물할 꽃 바구니(3만~5만원 상당)를 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취재단=백희준기자 bhj@

광주지점 지원단 다문화·외국인 유학생 U대회 경기 관람 지원

광주지점 U대회 지원단(단장 김희준 차장검사)이 다문화가정 구성원과 소년원 출신 청소년 등에게 경기 관람을 지원키로 했다. 8일 광주지점 지원단은 다문화가정 민·관 합동 특별지원단, 새날학교,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과 연계해 다문화가정 구성원 120여명의 경기 관람을 돕기로 했다. 또 외국 유학생 100여명에게도 조국의 경기를 관람하면서 향수를 달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단은 이외 소년원 출신생과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100여명, 무의탁 독거노인 30여명에게도 관련 단체와 함께 입장권 등을 지원한다. 김희준 단장은 “남은 대회기간에도 더 다양한 계층이 유니버시아드를 즐길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단=김지욱기자 dok2000@kwangju.co.kr

U대회, 유튜브를 타고... 광주, 덩달아 홍보되고

각국 선수들 SNS로 ‘개회식 극찬’ 등 전례

광주U대회에 참가한 각국 선수단이 유튜브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회 소식을 전 세계에 전하면서 ‘국제도시’ 광주도 덩달아 홍보 효과를 누리고 있다. 장맛비가 오락가락하던 8일 오후 2시 광주시 서구 화정동 선수촌 국가광장에서 열린 개회식 단체복을 입은 이탈리아 축구팀 20여 명이 한 명씩 주눅타는 발걸음으로 무대에 올랐다. 무대 앞에는 이탈리아 국기가 걸려 있었다. 무대에 오른 이들은 서로 눈을 맞추더니 6명씩 세 줄로 나란히 열을 지었다. 이탈리아의 인기 가요 ‘발리 데 씨드’가 흘러나오자 무대 여기저기서 피식 웃음이 터져 나왔다. 서로 눈치만 보는 것을 참지 못한 필리프 코르티(26)는 가지고 온 가면을 쓰더니 춤을 추기 시작했다. (사진) 5분여 정도 진행된 춤 동작은 간단했다. 이탈리아 축구 선수가 자주 취하는 골 세리머니 동작들이 주를 이뤘다.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거나 엄지를 치켜들며 한바



퀴 돌기도 했다. 이날 이들이 무대에 오른 이유는 자신들이 자국의 라디오 ‘라디오 테제이’에 출연하면서 DJ(진행자)와 한 약속 때문이었다. 이들은 첫 대전을 통과하면 단체 춤을 춘 뒤 SNS인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올리기로 한 것이다. 라디오 전파를 통해 자국 국민에게 내건 공약은 결국 현실이 됐다. 이탈리아 축구팀은 전날 목포에서 열린 대만과의 예선 경기에서 0대 0 무승부를 기록, 준준결승에 진출했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광주 U대회 개회식

이형만영광군항우장학회 장학생 모집

재단법인 이형만영광군항우장학회는 영광군민 및 재광영광군항우회원 자녀 중에서 애학심이 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기부가 뛰어나고 선행으로 따의 귀감이 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지원 자격 및 선발 인원

- ◆지원 자격
 - 영광군민 및 재광영광군항우회 회원 자녀 중, 중·고·대학에 재학중인 학생
 - 2014년 8.11현재 주민등록이 영광군이나 광주광역시에 둔 학생
- ◆선발예정인원: 총22명 중 광주지역 10명, 영광지역 12명 (중학생 0명, 고교생 0명, 대학생 0명)

2. 선발 방법 및 구비 서류

- ◆선발 방법
 - 영광군민의 자녀 중 영광군수가 추천한 자(영광군 추천양식에 의함, 영광군청 문외)
 - 재광영광군항우회 자녀는 별도 서류를 제출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추천 확정된 자
- ◆구비 서류(재광영광군항우회 자녀)
 - 장학금 신청서 1부 - 해당 학교장 또는 기관장 추천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재학증명서 1부
 - 동장 사본(본인명의로 한함)
 - 성적우수자는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기능보유자나 선행학생은 증명할만한 자료 사본
- ◆구비서류 양식은 이형만영광군항우장학회 카페 /http://cafe.daum.net/hmygg 링크

3. 선발 일정

- 서류접수: 2015년 7월 6일(월) ~ 7.31(금)
- 최종 확정 안내: 2015년 8월경 발표(개별 통지)
- 장학금 지급 및 중서 수여: 영광군민 자녀-영광군민의 날(9월 예정) 재광영광군항우회 자녀-재광영광군항우회 송년 행사 (12월말 예정)

4. 신청 방법

- 유원·방문접수
- 신청 및 문의처: (502-882)광주광역시 서구 유원로 100 (동천동 예천빌딩 7층) (동천동 예천빌딩 7층)
- 전화: (062)522-8422 사무국장 임재경: 010-8667-6143

5. 유의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발이 취소됨.
- 관련서류의 제출은 영광군민의 자녀는 영광군청으로, 재광영광군항우회 자녀는 이형만영광군항우장학회 사무국으로 제출

당신의 직장/집안의 광장! U-square

U-square점

YONAMJA STEAK/PASTA/PIZZA/BEER

- STEAK ₩12,500~
- PASTA ₩11,900~
- PILAF ₩7,900~
- PIZZA ₩11,600~
- SALAD ₩9,900~

100% Handmade Pizza

☎062)673-7979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

해남군 공고 제2015-902호

(주)남향레미콘 토석채취개발사업(재협)의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주)남향레미콘 토석채취개발사업(재협)의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9조 규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주민 및 이해 관계인들께서는 관계도서 내용을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시 주민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7. 9. 해 남 군 수

1. 사업개요

- 가. 사업의 명칭: (주)남향레미콘 토석채취개발사업(재협)의
- 나. 사업의 위치: 전남 해남군 현산면 만안리 산1-3번지 일원
- 라. 사업의 면적: 231,913㎡
- 마. 사업의 시행기간: 허가일로부터 9년
- 바. 사업의 승인기관: 해남군
- 사. 사업의 내용: 당초 기 허가지역(면적 147,545㎡)과 연결하여 신규추가(면적 84,368㎡) 확장하는 토석채취 개발사업

2. 공람장소 및 기간

- 가. 공람장소: 해남군청 산림복지과 및 현산면사무소
- 나. 공람기간: 2015. 7. 9. ~ 2015. 8. 5. (20일간, 공휴일 제외)
- 다. 공람시간: 평일 09:00 ~ 18:00
- 라. 공람내용 및 관계도서: (주)남향레미콘 토석채취개발사업(재협)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요약문(공람장소 비치)

3. 주민설명회 개최

- 가. 일시: 2015. 7. 16.(목) 오전 10:00
- 나. 장소: 해남군 현산면 만안리 마을 회관
- 다. 내용: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초안 설명

4. 주민의견 제출

- 가. 제출기한: 2015. 8. 12.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
- 나. 제출장소 및 방법: 공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으로 서면 제출
- 다. 제출의견: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환경보전방안 및 공청회 개최 요구 등에 대한 의견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청 산림복지과 ☎ 061-530-54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